

都市公共空間環境의 不安定化와 土地利用計劃改編의 方向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Enlarging and Environmental Improving of Public Open Space in Urban Land Use Planning

朴 炳 柱

(弘益大 環境大學院長)

〈目 次〉

- I. 序
- II. 都市公共空間에 대한 思考의 變化
- III. 公共空間의 機能과 形態
- IV. 居住空間의 質的向上과 公共空間에의 期待
- V. 우리나라 都市公共空間確保의 實態分析
- VI. 우리나라 土地利用計劃의 改編方向

I. 序

都市公共空間에 대한 市民의 關心度는 近年에 이르러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앞으로는 더욱 高潮되어 갈 것이다. 이에 對備하여 都市計劃 특히 土地利用計劃의 改編을 斷行해야 할 터인데, 現實은 여기까지 이르지 못할 障害要因이 많다.

이 研究는 먼저 都市의 公共空間確保가 왜 急先務인가를 強調하므로써 바람직한 公共空間確保에 寄與하려는 데 있고, 앞으로 本格化하려는 우리나라 都市公共空間 體系樹立을 위한 方向設定의 序說의 研究로서의 性格을 띤 것이다.

研究의 內容은 第2章 「都市公共空間에 대한

思考의 變化」에서 公共空間의 概念을 다루었고, 本論에 들어가기 前에 歐美諸國의 公共空間確保에의 움직임을 整理하였으며, 第3章 「公共空間의 機能과 形態」를, 第4章 「居住空間의 質的向上과 公共空間에의 期待」에서는 都市의 아메니티論을 展開하면서 公共空間의 質이 向上되므로써 周圍의 私空間의 質的向上으로까지 波及 效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다루었다. 第5章 「우리나라 都市公共空間確保의 實態分析」에서는 調查資料의 求得難으로 10個 地方都市의 河川 沿邊 土地利用現況을 中心으로 河川沿邊에서 公共空間의 實態만이라도 分析하므로써 우리나라 都市의 公共空間의 大體的인 傾向을 類推하는데 寄與하려고 했다. 第6章은 結論으로서 「우리나라 土地利用計劃의 改編方向」을 都市計劃과 關聯시켜 公共空間의 確保方案을 提示하였다.

II. 都市公共空間에 대한 思考의 變化

우리나라 都市計劃에서 가장 甚刻한 問題 하

나를 들어보라는 質問에 대해 나는 公共空間의 不足을 든다.

여기서 말하는 公共空間은 原則적으로 公共機關에서 管理하는 建物로 덮여지지 않는 開放空間을 말하며, 廣場·街路·公園 등을 뜻하고 나중에 말하려는 河川敷地·公共의 開放된 私有空間까지를 포함하는 概念이다.

흔히들 우리나라 都市는 過密하고 無秩序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歐美의 都市들과 比較해서 본 印象이 터인데, 그것은 잘 가꾸어져 있는 廣場이나 平地의 公園과 같은 開放空間이 매우 不足한 탓이다.

經濟적으로 貧困을 免하지 못하는 多大數의 市民으로서의 住宅의 規模가 零細할 수 밖에 없고 그러기에 墾地面積도 零細하였으며 進入道路의 幅도 相對적으로 좁았고 公共投資로서 投入되어야 하는 都市基盤의 公共投資費用도 적다보니 公園이나 廣場과 같은 公共空間의 確保는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겠다.

여기 10年來 우리나라도 持續적인 高度經濟成長 탓으로 個人的 住宅規模도 擴張되었으며 公共의 都市基盤整備投資力도 伸張되어 落後된 都市環境整備에도 關心을 기울이고 있지만 既存市街地의 손질에는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님을 痛感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都市를 보는 市民의 視角도 가지각색이어서, 이를테면 요즘과 같이 先進外國 나들이가 많은 마당에서도 歸國即後에는 外國의 좋은 都市環境과 落後된 우리나라 都市環境이 強하게 對比되어 不滿이 많지만, 얼마동안 지나면 또다시 別로 神經이 쓰이지 않고 어느 경우는 우리 都市는 無秩序한 自然發生的인 都市形成 그 自體가 우리 都市대로의 맛이 난다고

하여 어느새 無感覺해지는 수가 많다고들 한다.

그러나 嚴然한 事實은 計劃적으로 다듬어진 公共空間이 있어야 하고, 있으므로서 快適하며 便利하여 活氣에 찬 日常生活을 할 수 있다는 命題앞에 우리는 그러한 環境施設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탓으로 後退하고 縮念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데 큰 問題가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問題視하는 公共空間이,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歐美諸都市의 公共空間水準으로 높이고자 巴라고 있는데 比해, 歐美諸都市에서는 오히려 現在의 公共空間이 모자라다고 하고 있고 더 많은 公共空間의 確保를 위해 都市計劃에서 골몰하고 있다는 點을 念頭에 두면서, 우리들이 定立해야 할 公共空間의 確保目標設定과 그 確保方案에 대해 보다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本論에 들어가기 前에 先進歐美諸都市마저도 더 넓은 公共空間의 確保를 위해 都市計劃을 통해 애쓰고 있는 理由에 대해 概括적인 整理를 해 본다. 다시 말해서 歐美諸都市들도 大部分의 都市들의 公共空間이 알맞게 配置되어 있지않는 까닭은 그 都市들의 形成歷史를 통해 알 수 있다.

흔히들 아름다운 都市를 聯想함에 있어 파리의 例를 들지만, 그 파리는 19世紀 中葉에 나폴레옹 3世의 權力과 오스만(1809~1891)의 能力에 의해 17年間に 걸쳐 大改造가 이루어졌었다. 19世紀末 美國에서는 都市美運動이 展開되었는데, 그 契機는 1893年 시카고에 열린 콜럼비아 紀念碑의 會場이었다. 이 會場은 巨大한 建築, 調和있는 施設配置, 統一的인 空間構成 등 이들 모두가 보는 사람들을 魅了시켰다. 바야남(1846~1912)이 提唱한 그 哲學과 計劃 및 디자인은

美國都市計劃에 뿌리를 내리게 했고 10년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와싱턴(1900年)을 비롯하여 샌프란시스코(1902年), 센디아고(1907~08年) 등의 再開發과 市民運動을 隨伴하여 波及되었다. 즉 公共市場, 修飾街路, 公園系統 등으로 이루어지는 全市街地의 美化를 위한 設計로 發展되어 갔다.

런던의 경우를 보자. 아바크롬비教授(1879~1957)에 의한 大런던計劃(1944年)은 런던 中心部의 再開發 및 分散의 政策과 既成市街地, 그린벨트를 포함한 4개의 環狀計劃概念 및 뉴타운建設에 의한 整備手法을 主內容으로 하고 있는데 이 大都市圈計劃은 그뒤 많은 나라에서도 큰 反映을 일으켰다. 뉴타운計劃은 위의 大런던計劃의 踏도 있어, 英國에서는 1946年 뉴타운法아래 開發이 進行되었으며 初期의 經驗을 살려 計劃技法에도 많은 進展이 있어 오늘날 各國에서 많은 成果를 올리고 있다.

이 以外에도 베르린의 改造를 들 수 있고 新都市建設은 印度의 英領植民都市, 濠洲의 캔베라(1908年 國際設計應募에 따라 그리핀案 採擇-1913년부터 建設), 브라질리아(1956年 國際設計應募에서 코스타案 當選), 印度의 산디가르(1951年 르·꼬르비제) 등이 있고 특히 브라질리아의 新都市計劃에서는 未來에 對備하는 都市構造와 土地利用 및 施設配置를 통한 都市機能의 構成을 果敢하게 提示하였다.

위에서 들은 都市整備 및 新都市計劃의 事例를 통해, 이들 計劃의인 都市開發과 그 사이 都市整備에 큰 關心을 갖지않은 既存都市環境과 對照에는 그 兩者를 보는 都市環境의 優劣에 큰 隔差가 생기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좀더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러 都

市の 都市環境空間을 比較하는 感覺自體에는 사람마다 議論의 餘地가 있겠지만 大體的으로 共通되는 感覺에서 優劣을 가릴 수 있을 것이고, 그 感覺의 主된 要因은 公共空間의 量과 質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시원시리 뚫어진 넓은 街路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정도이면 現在의 交通量과 未來의 交通에도 對備할 것으로 느껴질 것이고, 景觀的으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街路란 街路環境이 整頓되어 있고 交通에도 차질이 없다는 街路面積과 街路施設物 그리고 그 街路和 隣接하여 品位있고 餘裕있는 廣場이 마련되어 있는 곳일 것이다. 自動車가 普及된 것이 今世紀初부터의 일이므로 그 前까지의 都市는 步行을 위주로한 都市形態로서, 都市의 規模도 相對的으로 적기 마련이어서 都心部形成의 形態 또한 그런 都市規模에 알맞는 基盤施設이면 足했던 것이다. 즉 市廳의 廳舍規模도 市廳앞 廣場의 넓이도 그 市를 支持하는 利用人口를 前提로 하였고 또 그 當時의 公共施設規模를 아무리 果敢하게 잡았다 하더라도 오늘날 바라는 公共施設規模와의 사이에는 큰 差異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보다 安全하고 快適하며 效率的인 生活을 追求하려는 理念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겠지만 社會·文化의 樣相이 前世紀까지의 社會모습과 今世紀에 들어서의 모습, 그리고 또 第2次 大戰後의 急變과 70年代 以後 現在의 世界諸都市計劃에서의 몸부림 사이에는 都市環境空間에 대한 思考가 크게 變化하였다는 點이다.

Ⅲ. 公共空間의 機能과 形態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汎世界的으로 都市域

에 있어서의 公共空間에 대하여, 새로운 關心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公共空間이란 말의 뜻에 대하여 먼저 規定짓고 넘어가야 하겠는데, 公共空間을 「오픈스페이스」란 말로 代替할 수 있고, 이 公共空間속에는 이른바 私有인 半公共空間까지를 포함시키는 概念으로 본다는 것을 前提한다.

外國諸學者들 가운데는 「오픈스페이스」를 狹意로 規定하여 公園·綠地만으로 간주하는 傾向도 있지만 「오픈스페이스」란 建築物이나 永久構造物로서 덮여있지 않은 土地 또는 水面을 指稱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空間이란 말도 都市空間, 建築空間, 外部空間 등 여러가지로 空間概念을 부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公共空間은 都市區域內的 建築內部空間이 아닌 開放公開된 土地(또는 水面)를 말한다. 그런데 國公有地는 公開가 原則이지만 私有地는 建築되지 않은 空地라 하더라도 또 비록 울타리가 없는 空지를 많은 사람들이 利用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時限的이라고 보는 것인데, 다만 私有地라도 建築線의 後退 등으로 非建蔽된 土地를 公開하도록 한다면, 또 半公開가 可能하다면 이것은 곧 公共空間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마리온·크로우슨」이 整理한 「오픈스페이스」는 다음의 하나 또는 몇개의 機能을 갖는다고 했다¹⁾

1) 建物에 빛과 空氣를 준다. 특히 都心部の

高層빌딩에 있어서 2) 都市의 景觀에 透視와 眺望을 준다. 특히 都市속의 조밀한 建築地區에 있어서 현저하다. 이것은 또 混雜에서의 숨구멍이 된다던가, 모든 빌딩이 建築法의 限界 가득히 세워졌을때 느끼는 壓迫感에서의 解放과 같은 意味로서도 생각된다. 3) 廣義로 해석해서 많은 레크레이션活動의 空間을 준다. 4) 生態學的 見地에서 重要的 保全機能을 지닌다. 예를들면 地表의 물을 가둔다든가, 洪水가 일어나기 쉬운 地域에 있어서는 洪水의 被害를 막고, 特異한 地域을 保存한다. 5) 都市를 形成하는 데 영향을 주고, 때문에 巨大하고 複雜한 大都市의 一部分은, 周邊部 속에 完全히 넣어서 開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周邊部와 分離시킨다. 6) 將來 어느 時點에서 어떤 用途로 有効하게 쓰일 수 있게 하기 위해, 더욱 積極的으로는, 이를테면 學校用地로 쓰이게 하기 위해, 現在는 空地 그대로 두도록 한다. 이런 경우 現在의 用途보다는 오히려 將來 쓰일 수 있도록 하는 柔軟性이 더욱 重要的 것이다.

公共空間의 機能과 形態를 論함에 있어 먼저 交通空間을 든다. 交通空間은 街路·高速道路·鐵道·空港·運河 등이다. 交通空間은 大部分의 都市에서 市街化面積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都市의 土地利用上 매우 主要한 公共空間이다. 특히 街路空間이 차지하는 役割은 매우 크다. 街路에는 都市內部的 自動車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自動車道路와 步行을 위한 歩道가 區分된다. 自動車普及以前的 街路는 步行이 爲主였고 때문에 街路空間은 예로부터 市民의 日常生活과 直結되어 있었다. 街路는 그 거리를 향해 나란히 建立된 建築과 共存하고 있어 街路空

1) 마리온·크로우슨(Marion Clawson) 都市의 새로운 資源으로서의 오픈스페이스
The Quality of the Urban Environment Edited by Harvey S. Perloff
「人間環境都市」日本語譯 p. 87 日本鹿島出版會 1971.

間은 建築의 廣場과도 結付되었고 그러기에 유럽의 사람들은 屋外의 街路위에 펼쳐지는 카페의 座席을 사랑했다. 이들 街路區의 카페는 步行者의 停留場과 같은 第2의 家庭을 形成하였다. 때문에 街路는 親近感이 넘치도록 단장되어야 했고 都市生活에 魅力을 주는 空間形成으로서 各都市마다 다투어 個性美를 表現하려 努力했었던 것이다. 이러한 街路空間形成의 歷史속에서 오늘날 自動車洪水와 이에 따른 停車場問題도 포함시켜 現在 및 將來에 對處하려는 街路空間의 整備方向에는 많은 苦衷이 가로놓여져기 마련이다.

都市區域안에는 크고 작은 公園, 綠地 및 廣場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레크레이션이 主目的으로 되어있고, 또 이 레크리에이션도 다만 앉아서 景觀을 보면서 즐기는 것에서부터 活動的인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多樣한 役割을 한다. 都市속에서 풍요롭고 人間的인 空間을 마련하려는 努力가운데 都市公園은 매우 重要한 役割을 한다.

都市公園은 오늘날 커뮤니티의 中心的裝置로서 存在해야 하고 都市空間의 秩序化의 媒體로서 또 都市美化의 中心的인 意味를 갖고 있다. 그래서 公園綠地의 서비스 水準을 나타내는 指標로서 1人當 公園面積과 公園綠地率을 比較하는 수가 많다. 都市公園은 市民의 日常生活과 密接한 關係를 지니므로서 그 位置도 居住環境空間計劃과 一體化가 되어야 하겠고 그러기에 어린이놀이터, 近隣公園, 地區公園 그리고 都市의 大規模公園까지도 都市의 全體的인 計劃의 一環으로서 立地條件이 다루어져야 한다. 公園은 量만 많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空間에 대한 接近性과 여러 機能이 있는 綠地들을 連續的으

로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 重要하다. 이른바「옴스 데드」의 公園系統의 主張은 오늘날 매우 有用한 것으로 再評價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劃地가 零細化하여 庭園다운 마당이 없는 많은 住宅에서는 公園의 効用이 切實하다는 것을 念頭에 두면서 共有의 庭園, 健康增進과 生活의 活力을 위해 公園綠地의 量과 質의 確保가 매우 重要한 것이 된다.

公共的인 建物の 外部空間은 公共空間으로서, 効用성이 매우 높다. 公共的인 建物は 象徴性도 감안하고 市民의 建物利用에의 便宜性과 利用動線上의 理由도 있어 一般的으로 餘裕있는 空地를 마련하는 것이 慣例로 되어있다. 그와같은 公共的인 建物は 그 自體로서의 外部空間과 함께 公園綠地의 用地와도 結付시켜 都市景觀形成에 寄與토록 하는 수가 많다. 市廳舍, 區廳, 洞會 消防署, 警察署, 協同組合 등 行政 및 公共廳舍나 學校, 圖書館, 金融機關建物에 이르기까지 公共機關의 建物敷地는 넓은 곳이 좋겠고 이런 公共建物과 함께 그 外部空間을 綠化하여 綠地空間을 擴大하는 效果도 兼하자는 것이다. 즉 綠化된 空間속에 公共의 廳舍들이 存在하는 것 같은 景觀을 造成하자는 것이다. 私有的 業務用建物の 外部空間도 半公開 또는 公開되고 있다. 歩道에서의 後退線의 設定 등이 義務化되기도 한다. 아파트는 넓은 共同의 庭園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魅力이 있었는데 아파트 分讓價의 減少를 위해 隣棟間隔을 좁혀 建蔽率과 容積率을 높이고 있는 惡循環이 거듭되고 있어 是正이 必要하지만 그래도 開放된 外部空間 즉 公開空間의 性格을 띠고 있음에 留意해야 한다.

河川·海岸의 水面 및 그 沿岸의 公共空間은

都市의 資源으로서 매우 重要하다는 認識이 새삼스럽게 클로즈업 되고 있다. 런던, 파리 등 많은 大都市들이 江을 中心으로 都市가 形成되었는데 그 까닭은 舟運이 交通의 唯一한 手段으로서 發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重要한 都市 施設은 河川의 沿岸에 立地하였고 建物의 前面은 河川쪽이었다. 自動車의 登場으로 航行可能 水面의 重要性이 퇴색되었고, 2次大戰後의 急激한 工業化바람으로 이들 河川은 工業廢水로 水質이 汚染되어 河川은 下水道化하여 沿岸의 市民은 河川으로 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다. 河川汚染의 結果로서 派生되는 다른 영향은 食水 및 農作物의 汚染까지에 이르러 河川水質回復에 沒頭하였다. 多幸히 오늘날 世界大部分의 河川은 水質汚染의 極度의 危驗에서 免하게 되었고 先進國일수록 그 回復相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다시 河川을 利用하는 水上 運動, 水泳 등 水中, 水上活動과 함께 물가 (高水敷地, 堤防敷地 등)를 利用하는 레크레이션의 價値가 크게 浮刻되고 있다. 이른바 「워터 푸론트」의 活用策이 世界의 流行語처럼 登場하였다.

이제 都市속에서 河川의 存在는 市民에게 가장 親近한 레크레이션의 基地로서 脚光을 받기 시작했고 옛날의 都市가 河川을 中心으로 形成하였듯이 오늘날의 都市도 河川을 基盤으로 都市 景觀을 再生시켜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IV. 居住空間의 質의 向上과 公共空間에의 期待

歷史적으로 보아 都市는 그 時代마다의 政治 體制, 經濟力, 産業構造, 技術水準 그리고 住

民의 生活形態, 生活水準에 따라 多様な 變遷을 해왔고, 그 時代마다의 要請에 따라 投資가 이루어지고, 都市의 空間이 形成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都市의 歷史속에서 變하지 않은 都市建設의 目標는 그 時代의 現在住民 및 子孫의 繁榮을 위해서 都市計劃을 便利性·健康性, 快適性의 觀點에서 都市整備를 하려고 努力해온 것은 分明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近年에 이르러 世界的으로 都市속에서 人間性을 回復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 都市의 「아메니티」造成에 重點을 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 理由는 무엇일 까를 먼저 생각하고 이에 對處할 수 있는 方案을 摸索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아메니티의 概念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있다」고 定義한 사람도 있고, 都市의 物的環境의 快適性의 總體를 意味한다²⁾고도 하고, 「아메니티」는 사람들이 바라는 生活樣式에 對應한 生活環境을 갖추어 있을것 이라고도 풀이하기도 한다. 「아메니티」의 概念이 出現한 19世紀中葉부터 20世紀初頭의 英國에는 産業革命의 進展에 따른 騒音, 煤煙, 過密居住, 綠地의 破壞가 都市를 뒤덮고 있었다. 거기에 中産階級의 靜寂, 빛, 맑은空氣, 綠陰에 쌓인 田園의 環境을 生活樣式으로 하는 英國型의 아메니티가 생겨난 것이다. 이와같이 아메니티는 오늘날 英國都市計劃의 特徵으로서 알려져 있는바 그 概念이 包括적이고 流動의이며 多義的인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2) 日本都市計劃學會編

「アメニティ都市への途」(아메니티都市への途) p. 13. ぎょうせい, 1986.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있다” “The right thing in the right Place.”

英國의 都市開發속에 「아메니티」를 받아 들이는 感覺은 市民의 安寧秩序에 放害가 되는 要素는 市民各自가 스스로 忠告해서 他人의 生活에 弊害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例를 들어 住宅地에서는 騒音이나 먼지·惡臭같은 것이 나는 施設은 말아야 한다. 規模가 크고 적고를 막론하고 整備·加工·生産工場이나 製材所같은 것까지도 對象이 된다. 商業行爲도 너무 시끄럽지 않아야 한다. 住宅開發도 周圍環境景觀과 調和될 수 있어야 하고 都市計劃의 地區計劃의 理念과는 合致될 수 있도록 建築層高라든가 建物配置가 이루어져야 하고 建物外觀 심지어 看板까지도 規制가 된다. 歷史的 建物 같은 것을 함부로 改造할 수 없고 樹木도 마구 잘라 없앨 수 없도록 한다. 그리고 交通上 병목現象이 생기지 않도록 開發計劃이 되어야 하고, 近隣施設도 충분히 갖추어질 수 있어야 住宅地開發이 可能해진다. 이와같이 開發에 있어 하나하나가 「아메니티」란 이름아래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英國都市住民의 基本姿勢는 産業革命으로 派生된 都市의 無秩序化 醜惡化에서 얻은 經驗으로서, 都市計劃에 強力한 規制가 加해지지 않고서는 당장의 都市生活에 큰 不便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認識하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中産階級の 實利」를 追求하기 위해서도 都市의 美學은 定立되어져야 하고 都市아메니티의 定着 및 發展이 없이는 英國都市 市民으로서의 긍지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 忖意되어 있는 것 같다.

以上에서 英國의 事例를 보았지만 이러한 아메니티의 要求는 人間의 보편적인 傾向이라고

할 수 있고 生活을 보다 快適하고, 文化的으로 하고 싶다는 것은 어느나라 市民에게나 꼭같이 適用되는 바램일 것이다. 結局 아메니티가 높은 都市環境은 都市計劃으로서 可能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때문에 都市計劃이란 公共介入·公共서비스의 存在價値가 重要視된다.

이런 思潮는 都市計劃의 目標를 都市空間全體의 質的向上을 圖謀하는것, 보다 좋은 都市空間을 創造하는 것에 두어야 하겠고 都市空間의 質的向上이란 都市의 經濟活動을 支持하는 機能性·動率性을 加하여 快適性, 아름다움 등을 調和시키는 것이며, 市民生活의 潤氣와 安樂함·즐거움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連結된다.

그런데 여기서 留意되어야 할 것은 都市計劃의 歷史가 오랜 英國을 비롯한 歐美諸國의 經驗에서 얻어진 教訓은, 都市計劃에서 바라는 居住環境의 質的向上이란 그 地域에 居住하는 市民의 大多數가 自己自身の 生活向上을 위해서도 이웃과 協力해야 하고 이런 共同의 努力에 의해 자기집 周圍의 居住環境도 改善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때 그 成果가 期待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居住環境의 惡化는 各自의 住居環境도 連結되어 惡化하므로 共同의 힘을 모아 居住環境의 質的向上을 하므로써 더불어의 實利를 얻어내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都市計劃에 많은 期待를 하게되고 成案된 計劃에 全幅的인 協助가 있어야 한다는 姿勢도 가다듬어 진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歐美의 諸都市에서도 大都市에서는 人口가 너무 많다는 것과, 各自의 所得隔差가 너무 크다는 點도 있어, 居住環境改善을 위한 都市計劃에의 協助가 상대적으로 희박하기 마련이어서, 所得隔差가 비슷한 階層이 모여들

기 마련인 郊外의 뉴타운建設에 힘을 넣는 것이 그 成果가 크다고 보았고, 이러한 豫想이 맞아서 뉴타운建設을 통한 居住環境整備에 一大前進을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뉴타운 建設의 傾向은 1950年代 以後에 大都市周邊에서 두드러진 成果를 보았는데, 中産層의 現代生活感覺에 알맞는 새로운 居住形態가 展開되었으니, 이의 영향은 逆으로 既存都市에서도 바람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렇게 되고 보니 다시 都市計劃의 올바른 理念이 되새겨지게 되고, 바람직한 都市計劃의 骨格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再吟味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論議속에 都市計劃에서의 土地利用計劃의 重要性이 새삼 台頭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公共空間의 量과 質 그리고 이의 配置가 곧 都市計劃의 基本骨格이 된다는 것을 再確認하게 되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의 都市計劃에서는

街路, 公園, 河川 등의 整備 및 그 需要를 充足할 수 있는 空間의 確保計劃이 있어야 하고 學校, 公共廳舍 등 公共建物이 알맞은 場所에 將來에도 對替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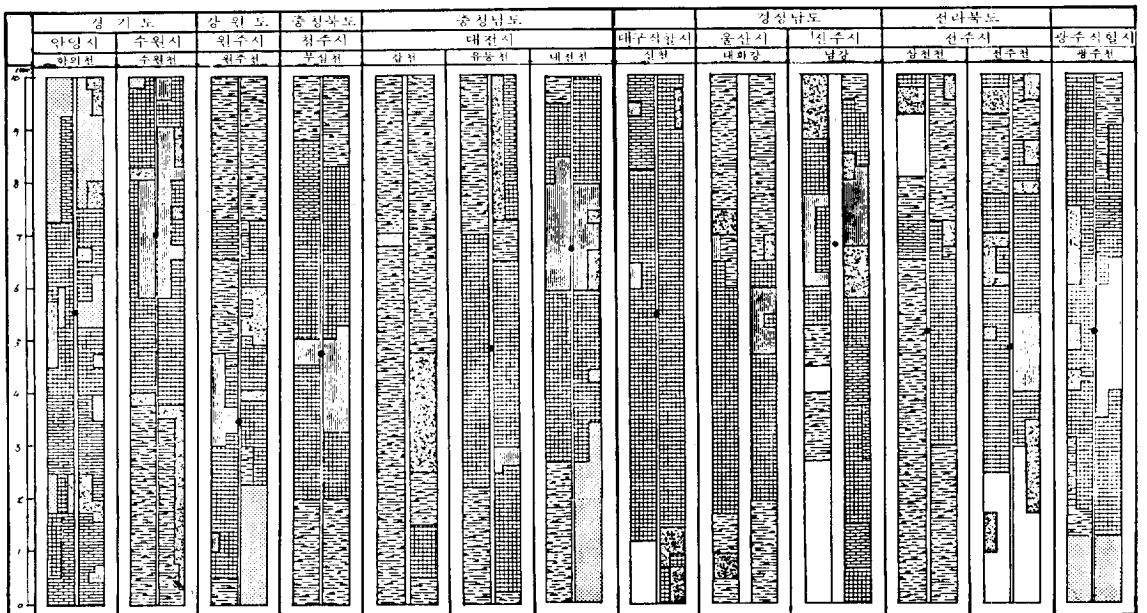
公共空間의 質이 높아지므로서 周圍의 私空間의 質도 向上될 것이고, 經濟的인 波及效果도 생겨 都市全體의 環境空間의 質을 向上시키게 한다는 등 先導的인 役割을 期待할 수 있다.

V. 우리나라 都市 公共空間確保의 實態分析

— 10個 地方都市의 河川沿邊 土地利用現況을 中心으로 —

本研究은 당초에 우리나라 主要都市의 公共

河川沿邊用途別土地利用現況 (범위: 沿岸 各500m)



범례: 수거지역, 상업지역, 방음지역, 공원, 유원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註) •는 河川에서 본 市街地中心點

空間에 대한 實態를 調査해 보려고 試圖하였으나 各市에서 이런 資料가 전혀 未備되어 있음을 알고 실망한바 있다. 도리없이 本研究者가 이 研究의 直前에 行한 「都市內 河川沿邊 土地利用에 관한 研究」의 一部資料(圖表)를 쓰고우리나라 10개 도시의 河川沿岸土地利用現況을 中心으로한 公共空間確保의 實態를 分析하므로써 이 論文에서 追求하고자 하는 全體都市計劃의 公共空間에 대한 傾向을 類推할 수 있도록 하였다.

河川 兩邊 用途地域別 現況 및 分析

(河川延長 10km 兩岸 各 500m 誘致距離)

●安養市 鶴儀川 沿邊

安養市 人口는 36萬人(87.7現在)으로서 학의 천은 平均幅 20~60m이며 舊市街地의 中心에서는 약간 벗어나고 있으나 將來都市計劃 에서는 全市街地의 中央部를 貫通하는 立地에 있다.

現況에서 나타난 土地利用規制는 圖示의 中心點에서 右岸 北側 1.4km地點에 近隣公園, 2.2km地點에 自然公園이 策定되어 있고, 中點에서 右岸 南側 3km地點에 公園이 工業地域 사이에 策定되어 있다. 工業地域 사이에 있는 이 公園은 都市計劃上 市街化區域의 거의 中央部에 位置하고 있으며 面積도 넓게 計劃되어 있으나 周邊環境의 見地에서 特徵을 내세울 수 없는 欠陷이 있다. 左岸은 都心部가 있는 舊市街地쪽 인데도 불구하고 河川에 近接한 公園綠地가 없다. 公共廳舍가 河川에 接하여 位置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幹線街路가 沿岸에 따라 一部區

間(左岸 延長 1.5km 정도) 施設되어 있다.

●水原市 水原川 沿邊

水原市 人口는 43萬人(87.7現在)으로서, 水原川의 河幅 20~50m이며 光教貯水池에서 流下하여 舊水原城內를 貫通하고 大皇橋洞쪽으로 흐르고 있어, 現在 水原市 中央部의 土地利用 및 都市景觀形成에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 河川沿邊의 公共空間은 公園用地로서 圖示中心點에서 0.6km地點에 舊水原城跡를 利用하여 策定하였고 그밖에 河川에 接한 公園綠地는 없다. 幹線街路도 河川 沿邊에는 計劃된 곳이 전혀 없다.

水原市 都市景觀은 八達山을 中心으로 한 環狀의 水原城이 特徵的이고 이 水原城內 中心市街地의 環境空間整備는 水原川을 除外하고 論議될 수 없을 정도로 그 立地가 매우 重要하다. 따라서 水原都心部의 公共空間確保는 水原川沿岸을 基軸으로 都市設計가 樹立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最少限의 公共用地마저도 確保되어 있지 않아 質的向上을 위한 環境空間計劃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水原市의 既存 用途地域制의 盲點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 水原市 下流部 未開發計劃地區에는 沿邊의 公共空間確保를 事前에 都市計劃을 통해 確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原州市 原州川 沿邊

原州市 人口는 15萬人(87.7現在)으로서, 原州川의 河幅은 20~80m이며, 原州市 南端에서 舊原州市街地의 東쪽을 거쳐 原州市北端인 南漢江으로 流下하고 있다. (原州川을 基軸으로 볼때는 左岸에 舊市街地가 形成되어 있으나, 河川沿邊만을 보았을 때는 右岸에 있는 原州一部市街地

4) 朴炳柱·康炳基 「都市內 河川沿邊 土地利用에 관한 연구」, 國土開發研究院, 1987.

가 本圖上에서는 左岸보다 더 發展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點에 留意해야 한다.)

原州川沿邊土地利用의 問題點으로는 公園綠地策定面에 있어 右岸의 既存 公園用地도 必要하지만, 오히려 既存市街地가 形成되어 있고 將來에도 더욱 發展 可能性이 높은 左岸쪽에 公園綠地가 더 많이 策定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現況으로서 左岸沿邊에 한곳의 公園綠地도 確保되어 있지 않음을 指摘할 수 있다. 이의 對策으로서는 左岸의 既存住居地域內에서도 公共空間을 確保할 수 있도록 努力하고, 未指定된 上流의 沿岸 약 3km區間의 生産綠地를 市街化할 土地利用計劃過程에서는 充分한 公園綠地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하고, 綠地뿐만 아니라 그밖의 公共用地(公共廳舍·學校 등)가 마련되어 河川과 더불어 活性化할 수 있는 都市環境空間計劃이 마련되어야 한다.

● 清州市 無心川 沿邊

清州市 人口는 35萬人(87.7現在)으로서 無心川은 清州市南端에서 現市街地 中央部를 貫通하여 清州市 北端 美湖川으로 流下하고 있다. 清州市形成의 歷史속에서 無心川의 位置는 清州 舊市街地의 西쪽을 흐르고 洪水의 범람을 避하기 위해 높은 堤防을 쌓은 이른바 天井川의 構造를 갖고 있다. 清州市의 都市化에 따라 無心川의 西쪽에도 오늘날 市街化가 進行되어 無心川은 이제 清州市街地의 中心部에 位置하게 되었다. 그러나 上記한 바와 같이 無心川은 沿邊市街地 地盤高보다 堤防이 매우 높아 河川利用과 關聯된 沿岸土地利用에는 極히 一部區間을 除外하고는 많은 隘路가 豫想된다. 그러나 無心川은 大清湖의 開發에 따라 洪水災害는 防止될

수 있고, 河川景觀의 水位調節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河川敷地의 美化整備 및 레크레이션施設이 可能할 것으로 보아, 無心川과 沿邊住民과의 連繫는 매우 깊어질 것이 展望된다. 한편 清州市는 現在 無心川沿邊에 公園綠地가 전혀 確保되어 있지 않으나 都市全體로 보아서는 比較的 公園用地가 알맞게 配置되어 있다는 點도 감안하여 이들 公園綠地들을 無心川과 더불어 系統化시키는 計劃이 整備되어야 하겠다.

● 大田市 大田川·柳等川·甲川 沿邊

大田市 人口는 87萬人(87.7現在)이며, 大田川은 大田市の 南東方向에서 大田舊市街地를 貫通하여 梧井洞에서 柳等川과 合流하고 柳等川은 市域의 南端에 北쪽으로 흘러 直龍洞에서 甲川과 合流하며, 甲川은 市域 南西方向에서 儒城溫泉場 東쪽을 거쳐 市域의 北쪽으로 流下한다. 河幅은 大田川이 20~60m, 柳等川은 20~70m, 甲川은 50~150m 정도이다.

大田川은 大田舊市街地 形成과 密接한 關係가 있어 1950年代부터 市街化中心의 存在가 되어왔으며 오늘날 大田川沿邊은 全市街地 가운데 가장 地價가 높은 곳으로 되어있는 圖表大田川의 中心點에서 兩岸各 2km에 걸쳐 都心商業地域이 策定되어 있으며 住居地域이 兩岸全延長에 걸쳐 存在한다.

그러나 大田川沿岸의 急激한 都市化 탓으로 計劃的인 土地利用이 制度化될 수 없었던 理由도 있겠지만 이 河岸에 公園綠地가 전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問題點으로 提起되고 있다. 大田川沿岸의 地價가 高騰됨에 따라 沿岸의 土地利用度는 高密化되고 있고 이러한 傾向은 土地의 效率的인 利用이란 美名아래 大田川을

覆蓋化하려는 方向으로 치달아 드디어는 一部 河川覆蓋를 통한 私有建築이 進行되는 등 混亂相이 惹起되었던 적도 있다. 大田川의 河岸에는 幹線街路가 施設되어 있고, 河川利用은 한때의 河川水質 汚染 및 環境惡化로 沿岸市民의 接近은 두절되어 있었다. 때문에 大田川은 大田都市環境空間으로 景觀上, 土地利用上 主軸을 이루는 公共空間으로서의 役割을 할 수 있는 素地가 전혀 없게 되었다.

한편 柳等川의 경우도 1960年代以後의 都市化로 兩岸에 幹線道路가 施設되었고, 河川沿邊에 計劃의인 公共用地確保가 마련되지 않는 등 上記 大田川과 같은 類型으로 問題點을 內包한 채 河岸土地利用이 進行되고 있다. 그러나 近年의 都市計劃基本構想속에는 柳等川의 兩岸의 상당한 公園綠地 및 水邊綠地를 計劃하고 있음을 본다. 甲川은 現在로서는 大田市 外廓部에 있어 都市計劃의 如何에 따라 바람직한 公共空間을 얼마든지 確保할 수 있는 與件으로서, 위 柳等川邊의 公共空間確保構想과 같은 맥락에서 甲川도 大規模의인 公園綠地를 우선 策定해야 한다는 意志를 보이고 있다. 例를 들어 甲川과 柳等川下流地點近處에 대규모의 湖水公園을 마련하겠다는 計劃도 있고 河川右岸 堤防을 따라 水邊綠地를 系統化시키는 등 計劃도 볼 수 있다.

●大邱直轄市 新川沿邊

大邱直轄市의 人口는 200萬人(87. 7 現在)으로서 新川의 河幅은 30~50m이며, 新川은 大邱市의 南端에서 舊市街地 東쪽을 거쳐 市街地 北端인 琴湖川으로 流下하고 있다. 1970年代以後 東大邱驛의 擴張 및 同驛前 開發을 主軸으로 新川東部의 市街化가 活發하게 進行되었다. 大邱

新川沿邊의 경우도 國內의 다른 都市河川 周邊 土地利用計劃의 問題點과 同一하게, 河川을 전혀 度外視한 都市計劃이었고 따라서 新川沿岸에 公園綠地의 存在는 皆無한 實態에 있다. 한편 近年에 이르러 大邱市 南北交通의 圓滑化를 위해 主幹線增設이 必要해졌는데 道路用地確保의 容易性을 내걸어 河川堤防을 따라 高速化道路가 施設되어 新川沿岸住民의 河川利用의 親水性을 斷切시키고 있는 등 問題點을 露出시키고 있다. 大邱市에는 現在 新川의 河川美化를 위해 堤外地(河川敷地內部)의 河道整理 및 高水敷地의 整備施設을 통하여 非雨期를 利用하는 公園의 環境(運動施設 및 어린이놀이터, 其地 레크레이션施設)을 造成하고 있으나, 물론 이런 施設整備도 必要하지만 根源의으로는 河川沿岸에 恒久的인 公園綠地(上記 河川高水敷地에는 原則的으로 1m 以上の 樹木은 자라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河川流水에 지장이 있는 施設은 禁하고 있음) 造成을 통해 充分한 綠陰을 確保할 수 있는 植樹도 하고 計劃의인 公共空間으로서 役割을 다할 수 있는 터전이 알맞게 配置될 수 있어야 하고 이들을 系統化시키도록 해야 한다.

●蔚山市 太和江 沿邊

蔚山市의 人口는 55萬人(87.7現在)이며 太和江의 江幅은 60~700m로서 市域의 西쪽에서 舊市街地의 南쪽을 거쳐 東쪽의 蔚山灣으로 流下하고 있다. 1950年代에 新工業都市로 計劃된 都市計劃圖에서 太和江은 上流部를 工業都市의 取水源으로 삼았고, 동천과의 合流地點 近處에 있는 計劃鐵道線地點 下流部 河口는 兩岸이 工業地域으로서 蔚山港灣施設의 役割을 擔當하도록 計劃되었다. 太和江 北岸쪽의 舊市街地는 都市

計劃에서 土地利用의 果敢한 計劃이 되지 못했으며 1新市街地造成地(太和江南岸쪽)는 河川의 市民生活과의 連關을 고려했어야 바람직하였는데, 그 當時에는 河川을 市民의 日常生活과 連關시켜 沿岸土地利用과 一體化시키는 計劃技法理念이 採擇되지 못하였음을 指摘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視角에서는 河川堤防高가 新市街地 造成地の 地盤高보다 越等히 높았다는데도 河岸에 公共空間을 策定 못한 理由가 當時로서는 있었다고 理解될 수도 있겠고 本市의 都市計劃에서는 工業地域 全體와 住居地域을 完全히 分離시켰고 또 그 사이에 幅 약 1~2km의 緩衝綠地帶을 設定하여 公害防止에 이바지했다는 것도 本都市計劃의 特徵으로 되어있다는 점도 附加한다

太和江 兩岸 土地利用의 將來計劃을 보면 西쪽의 現在 生産綠地를 左岸에는 相當한 區間 住居地域으로 하고, 右岸에는 一部만 住居地域으로 指定하고 있는바 本區間에는 兩岸의 公園綠地로서의 自然立地條件도 매우 良好하므로 보다 大幅의 公共空間을 事전에 確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晋州市 南江 沿邊

晋州市 人口는 23萬人(87.7現在)으로서, 南江은 平均 300m의 河幅을 지니고, 晋州市 西쪽에 있는 南江댐에서 舊市街地の 南쪽(礪石樓)에 接해 흘러 市域의 東쪽으로 流下하고 있다.

晋州의 特徵은 礪石樓와 南江의 白沙場을 들 수 있고, 또 南江댐도 有名하다. 때문에 晋州의 景觀을 얘기할 때 반드시 南江을 聯想하리만큼 南江의 存在는 晋州市 都市計劃과 불가분의 關係가 있다. 우리나라 都市의 中央部를 흐르는

河川가운데 自然景觀의 風致를 나타내고 있는 곳이 곧 南江이다. 때문에 南江은 예로부터 晋州市民 뿐만 아니라 外部住民들, 나아가서 온 國民들 사이에 礪石樓와 더불어 사랑을 받아 왔다. 대부분의 國民이 愛唱하는 民謠에서도 晋州라 三千里... 礪石樓와 南江이 登場할 정도이다. 그러므로 晋州市都市計劃에서는 礪石樓를 中心으로 한 南江쪽 兩岸을 綠化시켜야 하고 兩岸에 알맞는 公園綠地를 造成하므로써 南江自體의 自然的인 景觀을 복돋아 주어야 한다는 發想이 具顯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南江沿岸의 公園綠地策定은 施設綠地라는 名目으로 가는 線形體系가 있을 뿐 礪石樓를 中心으로 可視圈上이나마 果敢한 施設綠地가 이루어지지 못했음이 아쉽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속에서도 그나마 晋州의 南江정도로 河川沿岸에 體系의인 綠地의 存在가 다른 都市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附加하고 싶다.

● 全州市 全州川·三川川 沿邊

全州市의 人口는 43萬人(87.7現在)으로서, 全州川의 河幅은 20~50m이고 三川川은 25~90m이다. 全州川은 全州市域의 南東方에서 全州舊市街地の 西쪽을 거쳐 嶺東에서 三川川에 合流하며, 三川川은 市域의 南쪽의 全州川과 合流하여 市域의 北쪽으로 流下하고 있다.

全州川의 河川景觀은 오늘날 全州 全體의 都市景觀속에 強烈한 印象을 줄 정도로 全州市街地の 中央部에 位置하고 있다. 全州川은 右岸의 梧木台 近處를 통해 下流部의 公園에 接하고 左岸은 完山·多佳公園과 接하고 있다. 三川川의 沿邊에는 現在로서 公園綠地가 右岸에 1個所가 策定되어 있을 따름이다. 全州川의 沿岸에 이정

도의 綠地가 存在한다는 것은 古都 全州舊市街地를 둘러싼 自然景觀과 歷史景觀은 保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結果적으로 全州川과 連關되어 있다는 點이 河川景觀의 側面에서도 特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三川川의 경우는 現在 全州市의 市街地擴張地域에 該當하여 앞으로 新市街地가 形成되어야 할 곳인데도 불구하고 將來 三川川 沿岸의 住民을 위한 綠地空間의 確保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큰 欠陷이 아닐 수 없다.

● 光州市 光州川 沿邊

光州市 都市計劃人口는 114萬人(86現在)으로서 光州川의 河幅은 30~70m 정도이다. 光州川은 市域의 南東端에서 流下하여 光州市, 中央部를 貫通하고 있다. 光州川 沿邊에 있는 公園綠地는 都心部 左岸近處에 3個所의 存在를 보지만 河岸에 直接的으로 接한 綠地空間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光州市는 無等山 道立公園을 背景으로 크고 작은 公園이 都市空間全體로 볼 때 그런대로 配置計劃되어 있으나 市街地를 貫通하는 光州川 沿岸에 公園綠地의 確保를 소홀히 했다는 點은 매우 遺憾된 일로서 앞으로의 都市整備計劃에 조그마한 小公園의 確保라도 兩岸에 따라 可能한 여러군데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런 努力없이 光州川의 河岸整備 및 高水敷地整備만으로 河川景觀과 沿岸住民의 河川利用(親水性의 提高) 計劃은 차질을 빚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Ⅵ. 우리나라 土地利用計劃의 改編方向

우리나라는 各市마다 都市基本計劃이 있고 이

基本計劃(大體로 20年 計劃)을 土台로 向後10年 目標의 法定 都市計劃(都市再整備計劃)을 樹立하고 있다. 이들 都市計劃에서는 土地利用計劃을 통해 地域地區制를 設定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 交通計劃을 통한 街路網도 設定하며 重要都市施設을 配置하는 등 都市計劃의 틀을 마련하고 市街地開發事業 등의 計劃을 策定한다. 이런 都市再整備計劃은 大體로 5年間의 基礎調査를 實施하고 變化된 것과 改善되어야 할 都市計劃事項을 整理하여 都市計劃에 따라 다시 都市再整備計劃을 改定하고 있다.

土地利用計劃은 土地만의 利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建築施設 등 土地위에 構築될 施設을 포함하여 計劃하는 것으로 建築行爲의 制限을 위해 地域·地區制度를 통해 土地別 利用을 規制하게 된다.

都市開發의 方向을 올바르게 파악해서 土地利用制度의 運用을 어떻게 하면 보다 効率的인지가 항상 土地利用管理問題의 焦點이 된다. 都市를 한꺼번에 改篇할 수는 없는 것이고 既存의 現實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方向으로 전환시킬 수는 결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土地利用計劃은 物理的으로 有限한 資源配分과 配置 속에서 全體적으로 調和를 이룰 수 있는 空間과 施設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時間的 要因과 構成要因과의 相互關係 속에서, 市民의 日常生活에 가까운 生活周邊의 居住環境空間까지도 파악하여 現在 및 將來 市民들의 期待에 副應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때문에 來日을 위한 都市計劃의 方向은 새로운 時代에 對應하는 市民生活의 空間創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市民이 日常의 都市生活 속에 直接的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하늘에서(항공사진으로) 보는

都市構造의 平面投影形態가 아니며, 都市計劃專門家들이 만지고 있는 都市計劃圖가 아니라, 그들의 生活周邊에 展開되는 細部的인 조그만 일들을 이야기 하는 수가 많다. 그들은 自己住宅을 둘러싼 街區와 進入道路나 아이들이 노는 어린이놀이터, 쉽게 散策할 수 있는 公共空間을 먼저 提起하게 된다.

아침 저녁의 出退勤時에 보이는 街路環境空間에서 混雜과 不快함이 많으면 곧 都市計劃의 盲點을 非難할 것이며, 그들이 勤務를 하다 點心時間에 暫時 바깥에 나가서 쉬는 동안의 業務空間 속에서 都市施設이 잘못된 탓으로 不快하거나 不便하다면 그런때도 都市計劃의 잘못을 탓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居住空間, 交通空間, 業務空間의 環境이 잘못되어 짜증이 난다는 것은 市民各自의 하루의 日課속에서 많은 時間을 不快한 感覺속에서 시달려야 하는 結果가 곧 都市計劃의 質과 直結된다는 것을 더욱 實感하게 한다.

都市計劃은 大多數 市民이 항상 接하는 多衆을 위한 環境空間의 整備가 優先되어야 한다는 것이된다. 이것은 곧 公共空間 整備의 課題로 귀속된다.

우리나라의 土地所有形態는 私有를 主軸으로 하고 있어, 私有地의 土地所有者의 立場에서는 自己所有의 高價한 땅을 보다 價値있게 利用하므로서 財産增殖을 노리겠지만, 第三者의 立場에서는 이들 土地利用에는 個人的 慾求도 어느 정도 充足되면서 全體 市民을 위한 都市의 造成에 寄與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바로 이런 點에 規制와 調和의 妙味를 都市行政의 측면에서 찾아야 하고, 그래서 土地利用管理의 合理化方案이 더욱 깊이있게 研究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다시 여기서 都市의 土地利用에 있어서 公共性的의 問題가 무엇보다도 重要的 役割을 한다는 것을 再認識하게 되고, 따라서 公共空間을 如何히 都市計劃에 確保하느냐가 곧 都市計劃의 基本課題가 된다는 것으로 되돌아 간다.

우리나라는 近代의인 都市計劃의 歷史가 짧기 때문에 都市計劃의 內容에 있어서도 相對的으로 歐美諸國의 都市計劃의 質과는 比較的으로 落後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都市計劃은 都市計劃象의 理想的인 意慾만으로 바람직한 計劃으로 單純히 連結될 수는 결코 없을 것이고, 政治, 行政, 社會, 經濟, 市民意識들이 훌륭한 都市計劃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水準까지 上昇되어야 비로소 計劃의 質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地方自治를 눈앞에 두고, 地方自治의 圓滑化와 地方發展의 原動力이 곧 地域住民의 資質과 聯關되고 있다는 것은 말할 必要가 없거니와, 地方自治에 따른 該地域의 都市 및 地域計劃의 質的向上을 위한 改善方向을 對하는 住民의 關心도와 雜多한 要求度を 調整해 나아가야할 隘路가 가로놓여 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與件속에서 특히 土地利用과 수반되는 公共空間創出을 통한 都市空間環境의 質的向上에의 努力은 倍加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沮害要因을 住民과의 꾸준한 對話를 통해 最少化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公共空間確保를 위한 市民과의 對話는 먼저 市民이 충분히 理解할 수 있어야 하고, 어느 意味에서는 市民 스스로가 公共空間의 不足을 指摘하여 擴充을 要求할 수 있는 무드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都市의 白書같은 것을 만들어 즉 都市의

現況속에 公共空間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發生되는 混亂相과 現在 및 未來에 對備하기 위해서 方案을 仔細히 알기 쉽고 分明하게 나타내어 市民에게 호소하므로써 많은 市民이 呼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公共空間은 市民의 共同利益을 위한 公有地라는 點과 土地利用에서 將來를 對備해서 꼭 必要한 公共空間을 지금 이 時點에서 먼저 마련해 놓지 않는다면, 後日 市街化가(다른 用途로서 開發)된 뒤에는 土地確保가 不可能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어진다는 것을 現在의 市民에게 알려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各市에서는 다시 한번 公共空間의 確保라는 觀點에서 現在의 都市計劃을 再點檢해야 할 必要가 있다. 現在의 土地利用現況圖와 土地利用計劃圖 위에 透寫紙를 놓고 먼저 公園綠地를 表示하고 國民學校, 中高校, 大學 등 各學校와 公共廳舍, 公共施設, 河川 등을 表示하여 이들을 街路에 따라 連結시켜 보면 여러 虛點이 露出될 것이고 거기에서 自動車の 公共停車場 등을 考慮해 보면 公共空間의 不足이 實感으로서 크게 나타날 것이다. 어느 地區를 임의로 選定하여, 그곳에 居住하는 住民이 어디에서 散策을 하는가, 公園分布가 잘못되어 큰 不便은 없는가, 計劃적인 步行空間의 마련은 不可能한가 公園綠地의 系統化는 어려운가, 河川空間 利用의 活性化를 위해 沿岸에 永久的인 綠陰을 造成하기 위한 터전은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가도 나타나갈 것이고 日常生活과의 關聯에서의 重要性을 痛感할 것이다.

外國의 경우 土地利用計劃에서는 반드시 餘裕를 둔 公共空間이 確保되어야 하고, 이는 現在豫期치 못한 公共施設을 할 수 있는 柔軟性을

두기 위해서라고 한다. 計劃속에는 이런 配慮도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 우리에게서 現在로서 展望하는 必要不可欠한 公共空間의 土地만이라도 確保된다면 위의 計劃적인 施設은 時間을 두고 市財政形便에 따라 漸次로 補強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끝으로 各市는 現在 都市計劃上 公共用地確保 豫定面積(各種·位置別)과 既確保用地의 位置別面積의 調書에 따른 統計가 具備되도록 바라라고 하고, 이를 바탕으로 公共用地의 確保計劃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現在 各市가 保有하고 있는 國公有地는 公共施設用地로서 앞으로 매우 有効하게 쓰일 수 있다는 點을 잊지 말아야 하며, 따라서 各市는 都市計劃속에 公共空間의 質的向上을 前提로한 土地利用計劃의 再定立이 樹立될 때까지 國公有地의 拂下 賣却은 中止되어야 함을 強調한다.

參 考 文 獻

- 川上秀光 編著, 「都市政策의 視點」, 日本學陽書房, 1981.
- 渡部与四郎 編著, 「21世紀への 育都論」, 日本技報堂 出版, 1980.
- 日本都市計劃學會 編著, 「アメニティ 都市への途」, 日本 ぎょうせい, 1987.
- Kevin Lynch, A THEORY OF GOOD CITY FORM, MIT Press, 1981.
- Harvey S, Perloff編, THE QUALITY OF THE URBAN ENVIRONMENT, 日本版 「人間 環境都市」 鹿島出版, 1970.
- Paul D. Spreiregen, AIA, URBAN DESIGN. McGraw-Hill Book Company, 1965.
- 朴炳柱·康炳基, 「都市内河川沿邊 土地利用에 관한 研究」, 國土開發研究院, 1987.
- 朴炳柱, 「漢江沿岸綜合整備計劃에 관한 세미나主 題發表」, 弘益大, 서울市, 1987.
- 朴炳柱, 「都市景觀과 公共空間의 環境整備」, 「도시문제」誌, 1987. 11月號.